| 불자 세상보기 |

인격과 단절된 지식은 가짜다



이원식
금강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장애학생에 계단식 강의실 고집
서울 모 대학서 벌어진 無배려

장애학생 지원체계 확대됐지만
현실적 난관에 입학 포기 사례도
불이익 없게 교육여건 개선해야

외면적 여건만으론 해결 어려워
장애인 바라보는 의식 바뀌어야
"법정 스님의 無學을 되새길 때"

서울의 A대학의 한 수업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에… 계단식 강의실을 고집한 대학생들' 이라는 신문기사를 읽고 고등교육 현장이 얼마나 각박하고 인권 감수성이 취약한지 절감했다.

이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고,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강의실 리스트를 만들어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강의실이 리스트에서 빠진 것이다. 학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350m 떨어진 다른 강의실을 배정하려 했지만, 일부 비(非)장애 수강생들이 "동선(動線)을 고려해 수업 시간표를 짰는데 강의실 거리가 멀어지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에 따라 인심이 각박해진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불편함을 직면한다. 수강신청 때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가' '강의실이 1층에 위치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이나 소위 인기 있는 과목을 선점하는 것에 엄두조차 못 낸다. ATM기계나 학생식당 등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돼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용하기 힘든 일도 다반사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기회 확대는 1995학년도부터 도입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도 시행이 대표적이다. 이후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과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들은 점차 늘어났다. 대학들도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도입한 100개가 넘는 대학들도 장애학생들이 겪는 이동 또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은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실제 대학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건물 입구의 턱, 경사로,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강의실 구조, 주차공간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미비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교육 환경적 여건을 이유로 입학 차체를 포기하거나 입학했더라도 자퇴하는 장애학생들도 다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환경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책임자가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제2장 제2절)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외면적인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장애학생을 위해 제아무리 편의를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의 무(無)배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삐걱거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은 비용 문제 이전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대중의 의식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불자이면서 대학에서 10년 넘게 사회복지학을 지도해왔다. A대학에서 있었던 사건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기본적인 의식의 문제이기에 가슴이 먹먹하다. 동시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실린 '무학(無學)이란' 글이 떠올랐다.

무학이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취가 없음을 가리킨다.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말고 관념의 유희에 춤추지 말며, 자유롭게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식이 인격과 단절될 때 그 지식은 가짜요, 위선인 것이다.

社說

부처님오신날을 '화합의 축제'로

4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화합의 법등(法燈)이 불을 밝혔다.

올해 광장을 밝힌 봉축장엄등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던 탑등이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오고, 대통령 탄핵정국을 보낸 한국사회의 현 상황에 맞춰 '대국민 화합'이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

점등식에는 세월호 노란 리본을 형상화한 등이 설치됐으며, 점등식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어찌보면 지난 3년 동안은 아픔의 시간이었다. 고등학생과 일반인 300여 명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중 9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촛불 민심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냈다.

아픔의 시간에서 시민들이 나왔던 곳은 '광장'이다. 광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주장했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노래했다.

이제 광장은 화해와 화합의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장에 불을 밝힌 법등은 아픔을 넘어 화해와 화합으로 나가자는 서원이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온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는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다. 부처님이 탄생 직후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과 땅 사이 가장 귀중한 것이 인간이라는 '인본주의 평등선언'이다.

올해 봉축은 아픔을 넘어 상생과 화해를,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기원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의 '행복바라미' 집중 모금이 4월 22일까지 펼쳐진다. 자비보시를 통한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불교계가 실시하는 '행복바라미'는 2013년 시작했다. 문화공연과 탁발이 접목된 행복바라미는 예상보다 높은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지역문화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활용한 기부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동참한 지역에서 불우이웃을 추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역에서 수익금이 집행되는 투명한 운영도 많은 이들의 신뢰를 얻었다. 지난 3년 동안 행복바라미를 통해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1276명에게 5억 6300여 만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집중모금 기간 사찰 앞에는 목탁을 치며 모금을 독려하는 행복바라미 포교사들을 볼 수 있다. 수많은 이들이 길거리에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까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다. 불교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들 내부에는 본래 맑고 청정하며 물들지 않은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본래 완성된 부처이기에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드러내는 일이 바로 자비보시 행이다.

불자들의 자비보시행이 전통문화와 접목한 행복바라미로 뭉친다면 불교홍포와 인재양성,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이전과는 혁혁히 다른 성과를 나타낼 게 분명하다. 부처님 가르침은 실천하는데서 나온다고 한다. 주변의 이웃을 돕기 위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빛의 始原을 관하다

송마나 작가

아침빛이 바둑판만큼 아파트 앞 동의 벽면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창문을 열면 놀라 사라질 것 같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작은 빛 더미가 소리나 움직임도 없이 직사각형 모습으로 점점 면적을 키워 나갔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생기가 넘치자 빛은 옆 건물로 거침없이 나아갔다. 시선을 떼지 않았지만 빛은 마냥 팽창해서 그만 형태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두 눈을 뜨고서도 빛이 해체된 경계를 알지 못했다. 이제 빛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냥 빛난다. 그렇다면 '빛의 알'은 언제 부화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을까?

문득 덕산의 점심(點心)의 일화가 떠올랐다. 덕산이 배가 고파서 떡을 파는 할머니에게 점심을 달라고 하자 그녀가 물었다.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점심(點心)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덕산은 어느 마음에 점(點)을 찍어야 할지 쩔쩔매었다.

'빛의 알'의 지나간 과거는 알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깨어날 수 없고, 그렇다면 현재뿐인데 이마저도 순간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빛의 알'은 언제 깨어났을까? 빛은 나의 의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하얗게 빛난다.

> "붉은 색 아침빛과 한낮의 하얀 빛의 本有는 다르지 않다"

빛은 색깔도 변화시킨다. 붉은 아침빛이 어느새 흰빛으로 바뀌었다. 이때 흰색은 모든 색깔을 탈색한 무채(無彩)색이다. 칸딘스키가 말했던가?

"흰색은 물질적인 성질이나 실체로서 모든 색들이 사라진 세계의 상징이라고. 흰색은 무한의 세계. 이런 까닭에 흰색은 커다란 침묵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작용한다. 흰색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침묵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시작하기 전부터 무(無)요, 태어나기 전부터 무(無)인 것이다."

러시아인인 칸딘스키에게 몽골계의 동양인의 피가 흐른 탓에 그는 흰색에서 무(無), 즉 공(空)을 깨달은 것일까.

여명에는 붉은빛으로 붉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얀 빛이 빛나는 정오에는 눈이 부셔서 오히려 사물을 볼 수 없다. 하얀 무(無)의 세계는 칸딘스키가 말한 것처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만법의 바탕이지만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실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리라. 눈에 보이는 존재란 연기법에 따라 순간순간 깨어났다가 소멸하는 '연장적 연속체'인 것을.

그렇다면 붉은 색(色) 아침빛과 한낮의 흰빛의 본유(本有)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득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경구가 마음에 내려앉는다.

하얀빛이 방 안을 가득 비춘다. 내가 빛 속에 있다. 나와 빛을 분별할 수 없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염불(범음·범패) 무료교육
염불(범음 · 범패)을 배우고 싶으신 회원을 초대합니다.
염불 뜻을 알아야 소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 수 강 료 : 무료
■ 자 격 : 삭발 염의한 스님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내용 : 천도의식 뜻 해설 및 소리 (영남소리), 사물, 바라작법, 공양작법
■ 강 주 : 자운 스님
바라, 공양작법 - 해인 스님
■ 문 의 : 여여불음원
☎ 055)744-5300
❖ 회 비 : 십만원
단, 회비는 부처님 성지순례(1~2년 마다) 여행비로 비축
• 본인 염불소리 전문 녹음 및 CD제작 가능 •
여 여 불 음 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로 232-72 여여암

탈종공고
• 법 명 : 지명 (이승현)
• 승려번호 : 102-048
• 주 소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초로 91번길 24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삼화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쳐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